

가수협회 "SM,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공개하라"

강지훈 · 입력 2009. 8. 5. 17:27 · 수정 2009. 8. 5. 17:27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가수협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에 대해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대한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은 5일 오전 방송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에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문제는 현금 11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었는지, 정상적으로 분배가 됐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5명 멤버의 활동기간으로 나눠 발생한 금액이 회사 수익과 비교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의 수익 배분구조는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문제를 넘어 소속사와 가수간에 100대 0도 가능한 구조다. 수익 배분율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가수 인생 전부에 해당돼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 활동을 심각히 제한한다. 무효 계약조항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멤버의 주장이 맞다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방신기. 사진 = 마이데일리 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모바일 마이데일리 3693 + NATE/magic@ez-i-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